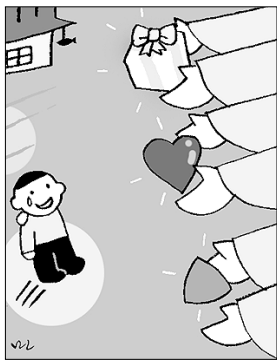




자비는 보시로 완성된다

요사이 대한적십자사가 전국 곳곳에 걸어놓은 홍보 현수막에는 '사랑은 동사(動詞)'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랑은 행동을 통해 전해진다는 뜻이다.

은 대사회 활동들은 이웃종교에 비해 늦게 시작한 탓에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스님들은 불자들이 기부(보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절에서는 불자들이 복을 제대로 짓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화두로 삼아 발원을 하고, 보시의 기회를 만들고, 복 짓는 수행을 하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유대교에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이 성공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에 최고의 복덕이라는 것이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보시바라밀' 사상을 토대로 기부하고 기부 받는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다.

■ 우승택(심성종교 전문 F.Nhonors 부장)

“교육원·포교원 통합 바람직”

스태프 기능 축소, 사찰지원·국제기능 등 강화해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진단 결과

조계종 포교원과 교육원을 통합해 유사기능의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하고, 중앙연구원 및 복지원 신설로 교육기능과 복지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경영컨설팅연구소는 조직진단 결과 “기능중심의 책임운영체제가 강화된 조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인사, 총무, 기획 등 스태프 기능을 축소하고 사회, 문화 등 공통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사실, 사서실, 기획조정실(6부1부)(총무부, 호법부, 문화부, 사회국제부, 교육부, 포교부(복지부) 14국(1국)(총무국, 사찰관리국, 재무국, 호법국, 조사국, 문화국, 사회국, 국제국, 승가교육국, 재가교육국, 조직국, 신행국, 기획국, 홍보국(복지국) 1소(총책연구소) 1센터(전통불교문화센터)는 종현·종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통강원을 사이버대학으로”

법장 스님 용주사 간담회서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전통 강원을 사이버 대학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법장 스님은 “일부 강원에서 승가교육제도 개선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강원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개선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순창규 경기도지사를 비롯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불교 시청각교재 발간

조계종 포교원, 중·고교에 무상배급

중·고등학교 종교교육 및 재향활동 시간이 청소년포교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목적·방법·체계 정립 안돼 ‘막막’

‘신도수행 현황과 과제’ 워크숍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신도수행 현황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제가 불자들의 수행 현주소는 어디에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가? 조계종 포교원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 영주 부석사에서 ‘신도 수행 현황과 과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재가자 수행체계 확립을 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서 포교원 박희승 차장은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한 신도가 3개월의 신도기본수행을 통해 교법 이해를 갖추고, 정진, 신심, 발심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선지식의 점검을 통해 간화, 지계, 간경, 염불, 주력, 위빠사나, 봉사 등 전문수행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수행체계 안을 제시했다.

종교연구원장 정병 스님은 “자료조사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으나 꼭 선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밝히며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승려기본교육과정의 간화선 지도 지침을 고려해 신도수행교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 포교원 박희승 차장은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한 신도가 3개월의 신도기본수행을 통해 교법 이해를 갖추고, 정진, 신심, 발심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선지식의 점검을 통해 간화, 지계, 간경, 염불, 주력, 위빠사나, 봉사 등 전문수행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수행체계 안을 제시했다.

종교연구원장 정병 스님은 “자료조사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으나 꼭 선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밝히며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승려기본교육과정의 간화선 지도 지침을 고려해 신도수행교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연구원장 정병 스님은 “자료조사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으나 꼭 선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밝히며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승려기본교육과정의 간화선 지도 지침을 고려해 신도수행교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탄·허·불·교·문·화·재·단. 자광사 국제선원 개원법회. 영어법회 및 템플스테이. 자광사에서 매달 둘째 일요일에 외국인 스님 영어법회(오전 10시) 및 (내)외국인 템플스테이(1박 2일 수련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